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rch 2025 Issue | Vol. 1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2028년까지 6.5~8%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가능 부문의 국내 개혁 강화해야 —page 1
- BDO: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가 필리핀 투자 붐 주도 —page 2
- Meralco, 필리핀 에너지 부문 혁신 주도를 위해 KEPCO와 협력 강화 —page 2-3
- 한국 물가상승률, 4개월 만에 최저치인 2%로 둔화 —page 3-4
- '미국 수출업체, 항공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전환할 수도' —page 4
- NEDA, 글로벌 무역 관계 확대가 경제의 '미래 대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혀 —page 5

UPCOMING EVENT

- [April 03, 2025] KCCP 제30회 정기 총회 —page 5

필리핀, 2028년까지 6.5~8%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가능 부문의 국내 개혁 강화해야

March 05,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은 2028년까지 필리핀 개발 계획(PDP)에 설정된 6.5~8%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래 가능" 부문을 강화하는 국내 개혁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곤잘로 바렐라(Gonzalo Varela)가 밝혔다.

"현재 경제 규모는 2010년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한, 필리핀 경제는 1,17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을 약 96%로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렐라는 수요일 유럽상공회의소(ECCP)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바렐라 이코노미스트는 "반면에"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약 4분의 3이 "비거래 가능"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바렐라는 거래 가능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부문이 "국제 경쟁에 크게 노출된"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문은 수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바렐라는 덧붙였다.

그는 거래 가능 부문이 경쟁에 노출될수록 "학습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며,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고 강조했다.



AN airplane view of Manila showcases the capital's bustling landscape, including Manila Bay, the port, ships, Pasig River, and towering buildings beneath a cloud-dotted sky. Despite a rise in export receipts, the country's trade deficit widened to \$5.09 billion in January, as import payments outpaced export growth, according to preliminary data from the PSA.

바렐라는 필리핀 경제가 "주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할 때 이는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맥락에서,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극도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렐라는 필리핀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 가능 부문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간소화, 디지털화 등의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3년간 필리핀의 예상 성장률 평균은 5.8%로, 베트남에 이어 지역 내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바렐라는 밝혔다.

이어 "만약 필리핀 개발 계획(PDP)이 목표로 하는 6.5~8%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규제 간소화와 디지털화 등 개혁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가능 부문이 성장하고 과거의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age credits: PAMELA LICO VIA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3/05/phl-must-double-down-on-domestic-reforms-for-tradable-sectors-to-attain-6-5-to-8-growth-goal-by-2028/>

BDO: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가 필리핀 투자 붐 주도

March 06,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During BDO's market outlook for corporate clients, the bank's executives underscored strong investor confidence and capital-raising initiatives that will dominate the year.

Businessworld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올해 인프라,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부문으로 부상하면서 상당한 투자 유입이 기대된다고 BDO 유니뱅크(BDO Unibank Inc.)가 밝혔다.

BDO의 기업 고객 대상 시장 전망 행사에서 은행 경영진은 강한 투자자 신뢰와 자본 조달 움직임이 올해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DO 캐피탈(BDO Capital)의 에두아르도 프란시스코(Eduardo Francisco) 사장은 필리핀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아시아, 북미, 유럽 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북미, 유럽의 외국 대표단이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BDO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이 전략적 투자 허브로서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프란시스코 사장은 밝혔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필리핀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으며, 적절한 현지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프라, 에너지, 물류창고, 콜드 스토리지, 병원 및 헬스케어를 주요 투자 분야로 꼽았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BDO는 지속가능 금융의 선도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성장 촉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각화, 사업 확장 및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고효과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라고 프란시스코 사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2025년 자본 조달 활동이 양자 간 부채, 신디케이트 대출, 민간협력사업(PPP)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사모투자 및 영구 우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했다.

BDO 최고투자책임자(CIO) 프리츠 오캠프(Fritz Ocampo)는 필리핀의 소비 중심 경제가 글로벌 경제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캠프는 단기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유연성과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BDO의 페소 및 달러 머니마켓 펀드를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초과 자금이나 연금 기금을 보유한 기업들은 BDO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통해 미국 및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자들은 부동산, 통신 및 은행 부문의 배당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은 다각화입니다.”라고 오캠프는 강조했다.

BDO 기관은행그룹(Institutional Banking Group) 총괄 부사장인 찰스 로드리게스(Charles Rodriguez)는 필리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호주 및 캐나다 기업들이 특히 인프라, 에너지 및 식품 부문에서 필리핀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상당한 기회가 존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필리핀 시장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대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로드리게스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3/06/2426156/bdo-infrastructure-re-lead-philippines-investment-boom](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3/06/2426156/bdo-infrastructure-re-lead-philippines-investment-boom)

Meralco, 필리핀 에너지 부문 혁신 주도를 위해 KEPCO와 협력 강화

March 06, 2025 | By MB Business | Manila Bulletin

마누엘 V. 팡길리난이 이끄는 마닐라 전력 회사(Meralco)는 필리핀 에너지 산업에서 최첨단 에너지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KEPCO)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Meralco와 KEPCO는 신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교류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력 분야에는 원자력 에너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고급 계량 인프라, 스마트 변전소 및 배전 자동화 등이 포함된다.

[Cont. page 3]

Meralco, 필리핀 에너지 부문 혁신 주도를 위해 KEPCO와 협력 강화

[Cont. from page 2]



STRATEGIC PARTNERSHIP TO ADVANCE ENERGY INNOVATION. Meralco ink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KEPCO for capability building, knowledge exchang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energy sector. Seen in photo are (from left) Meralco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Ronnie L. Aperochio; Meralco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Manuel V. Pangilinan; KEPCO Chief Executive Officer and Group Head, Kim Dong Cheol; and KEPCO Vice President and Head of Global Business Department, Chan Hyuk Chun.

마누엘 V. 팡길리난이 이끄는 마닐라 전력 회사(Meralco)는 필리핀 에너지 산업에서 최첨단 에너지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KEPCO)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Meralco와 KEPCO는 신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교류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력 분야에는 원자력 에너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고급 계량 인프라, 스마트 변전소 및 배전 자동화 등이 포함된다.

양사는 또한 특정 교육 과정을 위한 정보 및 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역량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호 관심이 있는 기타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이니셔티브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로 Meralco와 KEPCO는 필리핀의 에너지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KEPCO와 Meralco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지식 공유, 역량 강화, 그리고 더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라고 팡길리난 회장은 말했다.

“KEPCO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을 정교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며, 더 나은 미래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 목표를 넘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끌어갈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협력은 Meralco가 지난해 11월 KEPCO와 체결한 MOU 및 스마트 계량 기술 도입을 위한 ‘지식 데이터 네트워크(Knowledge Data Network)’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Meralco는 8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협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력 분배 시스템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urce: <https://mb.com.ph/2025/3/6/meralco-deepens-ties-with-kepcO-to-drive-innovation-in-ph-energy-sector>

한국 물가상승률, 4개월 만에 최저치인 2%로 둔화

March 07, 2025 | By Reuters | Malaya Business Insight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했다고 목요일 정부 자료가 밝혔다. 이는 통화 정책을 추가 완화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소나마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며, 전달 2.2% 상승보다 낮아졌다.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된 1.95%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2월 물가 상승 둔화는 원화 약세로 인해 1월 인플레이션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2%라는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를 초과한 이후 나타났다.

원화는 올해 들어 미 달러 대비 2% 강세를 보이며 목요일 1,444.2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2% 이상 하락한 이후의 반등이다. [Cont. page 4]



People shop at a flea market hosted by Bunjang, an e-commerce platform for secondhand sales, in Seoul, South Korea. (Reuters Photo)

한국 물가상승률, 4개월 만에 최저치인 2%로 둔화

[Cont. from page 3]

"향후 소비자 물가는 원화 약세와 낮은 수요 압력이 혼재하는 가운데 목표 수준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은 자료 발표 후 밝혔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올해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아시아 네 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완화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world-business/s-korea-inflation-softens-to-4-month-low-of-2/>

‘미국 수출업체, 항공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전환할 수도’

March 06,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REUTERS

글로벌 물류업체 디머코(Dimerco)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미(對美)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항공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머코의 2025년 3월 아시아 태평양 화물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필리핀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화물 운송 전망과 관련해 디머코는 3월 화물 운송 용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장거리 운송의 경우 최소 2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비와 태풍으로 인한 차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메르코(Dimerco)는 "비수기 동안 컨테이너 이동과 야드 활용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필리핀 상품을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에서 마닐라로 운송되는 화물은 공간 부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메르코는 "특히 마닐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서부 해안(West Coast) 노선에서 선복(space)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상 운송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연 위험을 줄이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필리핀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해상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메르코 보고서는 2월 말 북유럽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향하는 항로의 운송 용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발생한 현상이며, 지중해 노선의 활용률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물류 업체의 보고서는 선적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글로벌 동향을 밝혔다.

우선 디메르코는 "3월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 EU에 대한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환경을 재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은 무역 흐름을 교란시키고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EU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디메르코는 밝혔다.

이 물류 업체는 지정학적 긴장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들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메르코 익스프레스 그룹(Dimerco Express Group)의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캐시 류(Kathy Liu)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1월 20일 이후 시장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전세 화물기를 취소하면서 공급과 수요 균형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류 부사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B2C(기업-소비자) 모델에서 B2B2C(기업-기업-소비자)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항공 화물 수요가 줄어들고, 해상 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Image credits: Bloomberg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3/07/exporters-to-us-may-shift-from-air-to-ocean-freight/>

NEDA, 글로벌 무역 관계 확대가 경제의 '미래 대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혀

March 06, 2025 | Jervis Manahan | ABS-CBN News

마닐라 - 필리핀은 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투자 파트너 및 자원을 다각화하여 글로벌 충격에 대비한 경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이 목요일 밝혔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필리핀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경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리사칸 장관은 강조했다.

"우리의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지정학적 긴장이나 기타 경제적 충격에 강한 회복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경제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각화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 유치와 수출 역량을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발리사칸 장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각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며, 협력할 시장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장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시장은 민다나오 농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시아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경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예산관리부(DBM)와의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국가 간 특정 제품의 수출입 시 낮은 관세 등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허용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Source: <https://www.abs-cbn.com/news/business/2025/3/6/neda-says-expanding-global-trade-ties-will-help-future-proof-economy-2242>

UPCOMING EV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April 3, 2025 (Thursday) 05:00pm
Orchard A & B, 5F Ascott Hotel BGC

R.S.V.P.
Ms. Chi | Ms. Sang

(02) 8885-7342
info@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